

소외된 어린이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효과 연구*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Program for Alienation Children: focused on The Reading with Library Program

조 미 아(Mi-Ah Cho)**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결과 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 4.1 데이터 수집 방법 |
|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 4.2 교육대상자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4.3 프로그램 효과 분석 |
| 2.1 선행연구 | 4.4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 분석 |
| 2.2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개요 | 4.5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 문제점 분석 |
| 3. 연구 방법 | 5. 결론 |
| 3.1 가설 | |
| 3.2 측정도구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독서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46개 기관의 초등학생 590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참여기관 46개관 중 42개관(91.3%)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난 도서관은 11개관(23.9%)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Reading with Library' program in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through surveys with 590 children in 46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d in '2009 The Reading with Library' program. The study mainly focused on three factors - Children's Self-Esteem, Sociality, and Reading Ability and Questionnaire surveyed. The study revealed that 42(91.3%) among 46 institutions showed improvement in the Children's Self-Esteem, Sociality, and Reading Ability test. As the result, 11 institutions (23.9%) were influenced by the program.

키워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 소외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어린이,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Reading With Library, Self-Esteem, Sociality, Reading Ability, Alienated Children, Multicultural Family, Disabled Children

* 이 연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2009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사업 평가'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송곡대학 문헌정보과 초빙교수(miah100@naver.com)

논문접수일자: 2010년 4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4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5월 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199-220, 2010. [DOI:10.4275/KSLIS.2010.44.2.19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최근에는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가족해체, 미혼모 가족의 증가, 어린이 유기 및 방임의 증가, 한 부모 가정 증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가정간의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저소득 가정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건강문제부터 어린이기의 행동적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의 학업 성취도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Duncan & Brooks 2000). 어린이의 문제 행동은 청년기와 성인기까지 심각한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어린이의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발달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하영희 2003).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감,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의 상실, 학교생활에서의 위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한 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은 어린이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향후 원만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경향을 가져오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처럼 소외계층 어린이는 가정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이 많으며 집단 생활에서 부적응 행동 등이 다른 계층의 어린

이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며 부모나 가족의 불충분한 양육지원과 무관심으로 청소년기에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린이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어린이보호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의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교육적·사회적인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정보 및 문화 소외계층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소외대상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중심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민간 문화인력 활용으로 공공도서관의 인력부담 해소 및 프로그램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부터 3년째 운영 중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효과적이라는 강사와 담당사서의 정성적인 평가만이 있었으나 얼마나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측면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독서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독서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조미아 2006)가 있으며, 소외된 환경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도서관의 프로그램 개발연구(한운옥, 조미아, 김수경 2009),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저소득층 어린이에 관한 독서치료 연구(조효숙 2007; 박지연 2008; 지경희 2008) 등이 수행되었으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고 지역 공공도서관과 장애 어린이 기관, 지역 어린이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사회복지관, 보육원, 공부방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09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평가하고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의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46개 기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 검사지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4월초)와 사후 검사(9~10월)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어린이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서관별 어린이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의 마음의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4.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의 도서관 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교육인적자원부(2004)에서는 교육소외계층을 장애인, 저소득계층, 농어촌 지역 학생,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저학년 성인, 기초학력미달자, 북한 이탈 청소년, 학업중단자, 귀국학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2005)에서는 교육소외계층을 크게 저소득계층, 북한 이탈학생, 외국인 근로자 자녀, 농어촌 거주 학생으로 분류하였다. 이혜영(2003)은 교육소외계층을 도서 저소득 학생, 농촌 지역 학생, 장애인 학생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 기회를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소외계층 어린이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외계층 어린이는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적 조건인 문화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받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를 의미한다.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저소득층 어린이에 관한 독서치료 연구(이지혜 2003; 명창순 2004; 이남순 2006; 박지연 2008; 조효숙 2007; 지경희 2008),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박미정 2008; 한윤옥 외 2008;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조미정 2009),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정옥 2001; 이지혜 2003; 조미경 2003; 명창순 2004; 이남순 2006; 이수향 2007; 방숙은 2009) 등이 수행되었다.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로는 독서치료를 통해 성격 요인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박지연 2008)가 나타났으며, 사회복지관의 방과후 교실에 다니는 저소득층 이혼 가정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매회 50-90분 정도 매주 2회씩 총 15회의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친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명창순 2006),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어린이의 우울감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및 정서 조절 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조효숙 2007)가 수행되었다. 또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의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난 연구(이지혜 2003) 등이 수행되었다.

이남순(2006)은 저소득층 저학년과 중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동의와 본인의 희망을 받은 20명을 선발하여 이중 각각 10명씩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4주 동안, 매 회기 40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집중적 동시를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의 어린이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향상되었다. 독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소득층 어린이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지경희 2008) 등이 수행되었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공공도서관

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다문화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사례를 제시한 연구(한윤옥 외 2008;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가 수행되었다. 조미정(2009)은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가정 어린이 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독해력 정답률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주의 산만하던 어린이들의 독서태도가 향상되는 등 어린이의 읽기 태도에 효과가 나타났다. 박미정(2008)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 9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언어 환경과 문식성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독서 생활의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였다.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자폐성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요법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사회적 행동 및 자발성 행동의 향상을 도모한 연구(하정혜 2004), 장애유아에게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요법으로 사회적 비언어 및 언어표현이 향상되는 연구(김정옥 2001)가 수행되었다. 이수향(2007)은 장애형제를 둔 어린이 6명을 대상으로 주 2회 60분간 총 12회기간의 독서치료를 실시한 결과, 독서치료로 인한 장애어린이 형제의 형제관계에 대한 의식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지각하는 형제관계에 있어서 공감과 참여하기는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경(2003)은 시각장애유아의 독서 현황, 독서 환경, 독서 매체에 대해 조사한 후 시각장애유아의 독서 지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유아의 연령에 알맞은 다양한 내용의 도서 개발 및 독서 매체가 개발되어야 하며, 독서 지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정 - 학교

〈표 1〉 연도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프로그램 추진 현황

| 사업년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교육기간 | 6월-8월 (3개월간) | 5월-11월 (7개월간) | 4월-10월 (7개월간) | 4월-10월 (7개월간) |
| 1관 당 수업횟수 | 10회 | 24회 | 24회 | 24회 |
| 참여 도서관 수 | 16개관 | 30개관 | 50개관 | 75개관 |

가 연계한 독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소외계층에 어린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2.2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개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보조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도서와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태도 및 독서습관형성을 돕고, 정보 및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문화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지역 공공도서관이 장애 어린이기관, 지역어린이센터, 다문화관련기관, 사회복지관, 보육원, 공부방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참여도서관의 선정 절차는 소외 어린이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참여의지가 있는 공공도서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을 구성한 후 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참여도서관을 선정하게 된다. 2007년에는 16개

관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10회의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2008년부터 총 24회의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도서관이 해마다 교육대상 기관이 증가되어 2008년에는 30개관, 2009년에는 50개관, 2010년에는 75개관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표 1 참조).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가 협의하여 대상기관 및 참가 어린이들의 특성에 따라 활동 내용에 맞는 지역의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며, 참가 어린이 또는 활동 기관에 도서를 기증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정보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개발, 지역 문화중심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 민간 문화인력 활용으로 공공도서관의 인력부담 해소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의를 갖는다.

3. 연구 방법

3.1 가설

본 연구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도서관별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독서능력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외 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자아존중감 검사지, 사회성 검사지와 독서능력 검사지를 사용하여 사전검사를 하고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동일한 검사지로 사후검사를 하여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독서능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였다(표 2 참조).

〈표 2〉 개념적 가설 도식화

| 독립개념 | 종속개념 |
|---------------------|----------------------------|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 A 자아존중감 B 사회성 C 독서능력 |

3.2 측정도구

3.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가치롭게 여기는 정도”와 “개인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 “타인과 비교해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치나 중요성” 등을 말한다. 자아존중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결손가정의 어린이는 일반 가정의 어린이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권영미 1999; 안민주 2005). 자아존중감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저소득 가정

의 부정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완화시켜주며, 어린이의 문제행동 수준은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Luthar 1999).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회 정서적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이 문제에는 우울증, 또래 관계의 어려움, 낮은 자아존중감, 행동문제, 높은 수준의 전반적인 사회부적응과 심리적 장애 등이 포함되어 있다(민경화 2000). 빈곤어린이는 가정의 부정적인 환경으로 인해 사회·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학습·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등이 다른 계층의 어린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어린이기 초기에는 그 문제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으므로 자칫 간과하기 쉽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더 큰 문제로 악화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Garmezy 1993).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여 사전과 사후 비교 측정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일반적인 자아상을 의미하는 ‘일반적(총체적) 자아존중감’, 친구와 타인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에서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안정되고 있으며 얼마나 원만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가정적 자아존중감’, 교사나 동급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학교 자아존중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3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3 참조).

〈표 3〉 자아존중감 척도 및 문항수

| 하위척도 | 문항번호 | 문항수 |
|-----------|----------------------------------|-----|
| 총체적 자아존중감 | 1, 5, 9, 13, 17, 21 | 6 |
| 사회적 자아존중감 | 2, 6, 10, 14, 18, 22, 25, 28, 31 | 9 |
| 가정적 자아존중감 | 3, 7, 11, 15, 19, 23, 26, 29, 32 | 9 |
| 학교 자아존중감 | 4, 8, 12, 16, 20, 24, 27, 30 | 8 |
| 합 계 | | 32 |

3.2.2 사회적

사회성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반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오경준 2000). 어린이기에 사회성이 완성되지 못하면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어린이기 이후의 전반적 생활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 남과 쉽게 사귀고 충돌이 적으며 남의 의견에 잘 맞아 학생 사이에 인기가 있는 학생, 즉 사회성이 높은 것과 친구하고 친화하기를 꺼려하고 수줍어하는 비사회성으로 대조를 이룬다(김지백 1989).

저소득층 어린이의 사회적 행동 특성은 대체적으로 집단 응집력이 요구되는 환경 특성 때문에 사회적 상징 및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며, 부모의 보호와 지지가 부족하여 공격적, 파괴적 성향을 많이 보인다. 일차적 사회 환경인 가정 내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성숙한 모델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교나 또래 집단에서 교우관계를 맺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학습준비와 과제 수행에 뒤처져 교사나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다양한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김순희 2004).

김학수·이윤수(1975) 등은 초등학교 어린이의 사회적 행동 특성을 근면성, 책임성, 사회적,

준법성, 자주성, 생활습관, 정서 안정, 창의성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하위요인 중에서 특히 어린이의 행동 특성으로 잘 반영되는 것이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준법성, 자주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어린이의 사회적 행동 특성의 하위 영역인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준법성, 자주성을 의미한다(표 4 참조).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검사의 도구는 김학수, 이윤수(1975)가 제작한 생활지도 진단 검사(초등학교용)를 참고하여 양창호(1993)가 초등학교 어린이의 사회적 측정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의 행동발달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준법성, 자주성 등의 5개 변인으로 전체 문항 수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2.3 독서능력

본 연구에 사용된 독서능력 검사의 도구는 한복희 교수가 한국독서클리닉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하여 활용해온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독서능력은 한복희 교수가 한국독서클리닉센터를 운영하면서 20여명의 교사와 함께 경험적인 측면에서 학년별로 어떤 영역이 중요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만든 검사지이다. 검사지의 내용 중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쉬운

낱말과 문장으로 바꾸었다.

독서능력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읽기능력, 어휘력, 독해력, 정서/주의집중의 4개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읽기능력'을 제외한 어휘력, 독해력, 정서/주의집중의 3가지 변인만으로 측정하며 학년별 전체 문항수는 20문항이다(표 5 참조).

3.2.4 설문지 조사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크게 1)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2)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와 도서관 이용 변화에 관한 대항목을 구성하였고, 각 대항목마다 관련 소항목을 아래 <표 6>과 같이 개발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표 4> 사회성 검사의 측정 요인과 문항수

| 측정 요인 | 문항 번호 | 문항수 |
|-------|-------------------------------|-----|
| 근면성 | 1, 6, 11, 16, 21, 26, 31, 36 | 8 |
| 책임감 | 2, 7, 12, 17, 22, 27, 32, 37 | 8 |
| 협동성 | 3, 8, 13, 18, 23, 28, 33, 38 | 8 |
| 준법성 | 4, 9, 14, 19, 24, 29, 34, 39 | 8 |
| 자주성 | 5, 10, 15, 20, 25, 30, 35, 40 | 8 |
| | 합 계 | 40 |

<표 5> 독서능력 검사의 측정 요인 및 문항수

| 측정 요인 | 학년별 | | |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 읽기능력 | 4 | 3 | 3 | - | - | - |
| 어휘력 | 3 | 3 | 5 | 6 | 8 | 3 |
| 독해력 | 5 | 5 | 4 | 6 | 4 | 9 |
| 정서/주의 집중 | 8 | 9 | 8 | 8 | 8 | 8 |
| 합계 | 20 | 20 | 20 | 20 | 20 | 20 |

<표 6>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 의견 조사 항목

| 대항목 | 소항목 |
|------------------------------|--|
| 1)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의 마음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의 마음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재미있었던 프로그램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했으면 하는 수업 |
| 2)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와 도서관 이용 |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참가하기 전과 참가한 후 도서관 이용 |

4. 연구결과 분석

4.1 데이터 수집 방법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검사로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말까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사후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에 736명이 참여하였으며, 사후검사에 687명이 참여하였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참여한 50개 기관 중에 대구서부도서관(대구서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가수원도서관(관저종합사회복지관), 제주 한경도서관(성암어린이집)은 유아만 대상으로 한 기관이어서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경기 포천시립일동도서관(창길잡이의집)의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발생하여 수업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론적으로 46개의 기관의 59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실시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독서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의 평균차이 검정인 T검정 중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는데 대응표본 T검정은 모집단이 동일할 때(동일한 표본의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실시한 후 각 반의 회 차별 분석은 동일한 집단이므로 각각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로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2 교육대상자 분석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모두 응답한 어린이 5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 중 남자 어린이가 300명(50.85%), 여자 어린이가 290명(49.15%)이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139명(23.6%)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3학년 130명(22%), 2학년 111명(18.8%), 5학년 82명(13.9%), 6학년 65명(11.02%), 1학년 63명(10.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지역 어린이센터가 286명(48.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육원이 201명(34.1%), 사회복지관 34명(5.8%), 공부방 34명(5.8%), 장애아 29명(4.9%), 다문화 6명(1%)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기관의 유형별 검사지 분석 대상자

| | 구분 | 명(수) | 퍼센트 |
|--------|---------|------|--------|
| 기 관 | 장애아 | 29 | 4.92 |
| | 지역어린이센터 | 286 | 48.47 |
| | 다문화 | 6 | 1.02 |
| | 사회복지관 | 34 | 5.76 |
| | 보육원 | 201 | 34.07 |
| | 공부방 | 34 | 5.76 |
| | 합계 | 590 | 100.00 |

도서관별 분석대상자는 어린이 수가 20명 이상인 도서관은 6개관(13.0%)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자수가 10명이상 20명 미만인 도서관은

24개관(52.2%), 분석대상자수가 10명 미만인 도서관은 16개관(34.8%)으로 나타났다.

4.3 프로그램 효과 분석

4.3.1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 대응표본 T검정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하위 항목에서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 하위항목에서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t=1.995(p < 0.05)$ 이지만 오히려 사전의 평균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t=0.248(p > 0.05)$,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t=0.518(p > 0.05)$, 학교 자아존중감은 $t=-0.113(p > 0.05)$, 전체 자아존중감은 $t=0.966(p > 0.05)$ 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이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 자아존중감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8 참조).

(2) 도서관별 자아존중감

분석대상 46개관 중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 후에 자아존중감 점수가 향상한 도서관은 모두 35개관(76.1%)이었다. 자아존중감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효과가 나타난 도서관은 모두 7개관(15.2%)이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원, 김해시립장유도서관, 인천주안도서관 3개관이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효과가 나타난 도서관을 살펴보면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개관에서 나타났고,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인천주안도서관, 속초평생교육정보관,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의 3개관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개관, 학교 자아존중감은 대구북부도서관, 정읍기적의도서관, 경상북도상주도서관 3개관에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8〉 전체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 항목 | 검사 | 평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총체적 자아존중감 | 사전 | 3.619 | 0.855 | 1.995 | 0.046 |
| | 사후 | 3.542 | 0.816 | | |
| 사회적 자아존중감 | 사전 | 3.287 | 0.869 | 0.248 | 0.804 |
| | 사후 | 3.278 | 0.790 | | |
| 가정적 자아존중감 | 사전 | 3.798 | 0.805 | 0.518 | 0.605 |
| | 사후 | 3.766 | 0.814 | | |
| 학교 자아존중감 | 사전 | 2.869 | 0.717 | -0.113 | 0.910 |
| | 사후 | 2.873 | 0.672 | | |
| 자아존중감 합계 | 사전 | 3.230 | 0.565 | 0.966 | 0.334 |
| | 사후 | 3.207 | 0.506 | | |

* $p < 0.05$

<표 9> 도서관별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 효과 분석표

| 도서관명 | 검사지 영역 | 자아 존중감 전체 | 총체적 자아 존중감 | 사회적 자아 존중감 | 가정적 자아 존중감 | 학교 자아 존중감 | 사회성 전체 | 근면성 | 책임감 | 협동성 | 준법성 | 자주성 | 독서 능력 전체 |
|---------------|--------|-----------------|------------------|------------------|------------------|-----------------|-----------|-----|-----|-----|-----|-----|----------------|
| 강동구립해곡도서관 | | | | | | | | | ▲ | | | ▲ | ▲ |
| 관악문화관도서관 | | | | | | ▲ | | ▲ | ▲ | | | ▲ | |
| 동대문도서관 | | | | | | ▲ | | | ▲ | ▲ | | | ▲ |
| 월계문화정보도서관 | | ▲ | ▲ | ▲ | ▲ | | | | | | | | |
| 은평구립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구덕도서관 | | | | ▲ | | | | | | | | | ▲ |
| 부산서동도서관 | | | | | | | | | | | | | |
| 부산연산도서관 | | | | | | ▲ | | | ▲ | | | ▲ | |
| 부산해운대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대구북부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무등도서관 | | | | | | ▲ | | | | | | | |
| 광주산수도서관 | | | | | | | | | | | | | |
| 광주중앙도서관 | | | | | | | | | | ▲ | | | ▲ |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 | | | | | | ▲ | ▲ | | ▲ | ▲ | | |
| 금호평생교육관 | | | | | | | | | | | | | |
| 경기도립중앙도서관김포분관 | | | | | | ▲ | | | | ▲ | | | |
| 구리시교문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 | | | | | | | ▲ | | | | | |
| 시흥어린이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단원어린이도서관 | | | | | | ▲ | ▲ | | | | ▲ | ▲ | |
| 의정부과학도서관 | | ▲ | | ▲ | ▲ | ▲ | | | | | | | |
|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 | | | | | | | | | | | ▲ | |
| 인천계양도서관 | | | | | | | | ▲ | ▲ | | | | |
| 인천부평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인천주안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북구도서관 | | ▲ | ▲ | ▲ | | | | | | | | | ◎ |
| 울산남부도서관 | | | | | | | | | | | | | |
| 속초평생교육정보관 | | ▲ | | ◎ | ▲ | ▲ | ▲ | | ▲ | ▲ | ▲ | ▲ | |
| 정선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춘천시립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충주시립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제천시립도서관 | | | | ▲ | ▲ | ▲ | | | | | | | |
| 공주시시립도서관웅진관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평생교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창공공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정읍기적의도서관 | | ▲ | | | | ◎ | | ▲ | | | | | |
| 강진군도서관 | | ▲ | ▲ | | | | | | | | | ▲ | |
| 남평공공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여수시립현암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립영일공공도서관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립칠곡공공도서관 | | | ▲ | | | | | | | ▲ | | | ▲ |
| 김해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김해시립장유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산도서관 | | | | | | ▲ | | | ▲ | | | | |
| 통영도서관 | | | | | | ▲ | | | | ▲ | | | |

*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도서관 ◎,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후 점수가 상승한 도서관 ▲

4.3.2 사회성

(1) 사회성에 대한 전체 대응표본 T검정
 사회성 하위항목에서 책임감과 준법성은 $t=3.040(p < 0.05)$, $t=2.118(p < 0.05)$ 이므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근면성과 $t=1.580(p > 0.05)$, 협동성은 $t=0.795(p > 0.05)$ 이지만 오히려 사전의 평균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자주성은 $t=1.614(p > 0.05)$, 사회성 전체는 $t=2.818(p < 0.05)$ 이지만 오히려 사전의 평균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은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 사회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0 참조).

(2) 도서관별 사회성

분석대상 46개관 중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사회성 점수가 향상한 도서관은 모두 33개관(71.7%)이었다. 사회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효과가 나타난 도서관은 모두 4개관(8.7%)이었다. 김해시립장유도

서관 1개관이 사회성 전체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성의 하위영역에 효과가 나타난 도서관을 살펴보면 근면성은 김해시립장유도서관 1개관에서 나타났고, 협동성은 고창공공도서관, 여수시립현암도서관, 김해시립장유도서관 3개관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준법성은 김해시립장유도서관에서만 나타났으며, 자주성은 남평공공도서관, 김해시립장유도서관 2개관에서 나타났다(표 9 참조).

4.3.3 독서능력

(1) 독서능력에 대한 전체 대응표본 T검정
 독서능력은 각 학년마다 하위항목에 대한 문항이 달라서 전체에 대한 사전 - 사후 평균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t=-0.465(p > 0.05)$ 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이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 독서능력 측면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1 참조).

<표 10> 전체 사회성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 항목 | 검사 | 평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근면성 | 사전 | 0.694 | 0.246 | 1.580 | 0.115 |
| | 사후 | 0.677 | 0.242 | | |
| 책임감 | 사전 | 0.625 | 0.240 | 3.040 | 0.002 |
| | 사후 | 0.590 | 0.251 | | |
| 협동성 | 사전 | 0.654 | 0.226 | 0.795 | 0.427 |
| | 사후 | 0.645 | 0.202 | | |
| 준법성 | 사전 | 0.699 | 0.245 | 2.118 | 0.035 |
| | 사후 | 0.670 | 0.311 | | |
| 자주성 | 사전 | 0.594 | 0.246 | 1.614 | 0.107 |
| | 사후 | 0.576 | 0.248 | | |
| 사회성(전체) | 사전 | 0.653 | 0.189 | 2.818 | 0.005 |
| | 사후 | 0.632 | 0.179 | | |

* $p < 0.05$

〈표 11〉 독서능력 전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 항목 | 검사 | 평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독서능력(전체) | 사전 | 3.504 | 0.872 | -0.465 | 0.642 |
| | 사후 | 3.521 | 0.831 | | |

* p < 0.05

(2) 도서관별 독서능력

분석대상 46개관 중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후에 독서능력 점수가 향상한 도서관은 모두 21개관(45.7%)이었으며 독서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효과가 나타난 도서관은 모두 4관(8.7%)이었다. 독서능력 전체에 효과가 나타난 도서관은 대구북부도서관, 인천북구도서관, 충청남도평생교육원, 고창공공도서관 4개관이다(표 9 참조).

설렌다, 떨린다, 궁금하다'가 175명(27.5%), '하기 싫었다.'가 143명(22.4%), '그저 그렇다'가 78명(12.2%), '기타'가 31명(4.9%)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기타 의견 중 긍정적인 반응으로 '책을 마음껏 읽겠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다', '읽다가 어려운 부분을 배울 수 있다', '책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감정상으로 '약간 두렵다', '부끄럽다', '낯설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부끄럽고 슬펐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글씨 많은 책은 싫다', '책의 내용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려울 것 같다', '책만 읽는 줄 알았다', '안 해봐서 전혀 몰랐다', '잘 몰랐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4.4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 분석

4.4.1 프로그램 참가하기 전과 참가한 후 마음의 변화

(1)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의 마음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참가 전의 마음을 질문한 결과, '재미있을 것 같다'가 210명(33.0%), '기대된다,

(2)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자신이 달라진 점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참가 후의 마음을 질문한 결과, 긍

〈표 12〉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의 마음(복수응답 가능)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 명(수) | 백분율(%) |
|--------------------------|------|--------|
| 재미있을 것 같다 | 210 | 33 |
| 기대가 된다, 설렌다, 떨린다, 궁금하다 | 175 | 27.5 |
| 그저 그렇다 | 78 | 12.2 |
| 하기 싫었다 | 143 | 22.4 |
| 기타 | 31 | 4.9 |
| 합 계 | 637 | 100 |

정적인 대답으로는 '책 읽는 것이 좋다'가 313명(45.7%), '재미있다'가 147명(21.5%),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가 59명(8.6%), '집중하는 자세와 태도가 좋아졌다'가 40명(5.8%), '공부가 잘된다'가 32명(4.7%), '발표를 잘한다'가 24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부정적인 대답으로는 '지루하다'가 28명(4.1%), '시간이 없다, 늦게 끝난다'가 15명(2.2%), '시끄럽다'가 9명(1.3%), '가끔 힘들다'가 8명(1.2%), '귀찮다'가 6명(0.9%), '재미없다'가 4명(0.6%)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3)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후의 마음의 변화

어린이들의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후의 마음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44개관 중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전보다 프로그램 교육 후에 마음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도서관은 모두 38개관(86.4%)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후의 마음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서관 전체적으로 볼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 마음에 대한 점수를 3점 만점으로 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응답한 경우에 3점, 보통은 2점, 부정적인 태도는 1점으로 채점하였다. 마음의 변화가 향상되지 않은 도서관은 인천북구도서관, 의정부과학도서관, 인천부평도서관, 구리교문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남평공공도서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북구도서관, 의정부과학도서관, 인천부평도서관, 구리교문도서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매우 긍정적인 편이었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평균이 하락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2.6점대이므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긍정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월계문화정보도서관과 남평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마음이 보통 수준이었고 프로그램 진행 후에도 보통으로 나타났다. 월계정보도서관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내용을 보면

〈표 13〉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마음의 변화

| | 참가한 후 생각 | 명(수) | 백분율(%) |
|--------|-------------------|------|--------|
| 긍정적 반응 | 책 읽는 것이 좋다 | 313 | 45.7 |
| | 재미있다 | 147 | 21.5 |
| |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 59 | 8.6 |
| | 집중하는 자세와 태도가 좋아졌다 | 40 | 5.8 |
| | 공부가 잘된다 | 32 | 4.7 |
| | 발표를 잘한다 | 24 | 3.5 |
| 부정적 반응 | 지루하다 | 28 | 4.1 |
| | 시간이 없다, 늦게 끝난다 | 15 | 2.2 |
| | 시끄럽다 | 9 | 1.3 |
| | 가끔 힘들다 | 8 | 1.2 |
| | 귀찮다 | 6 | 0.9 |
| | 재미없다 | 4 | 0.6 |
| | 합 계 | 685 | 100.0 |

영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글로 된 책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책으로 교육한 것은 소외어린이의 문해수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남평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늦은 시간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에 불만을 표현했다. 남평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저학년은 오후 7시부터 8시, 고학년은 8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쉴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이들의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참가 전과 참가 후의 마음에 변화에 대한 평균 비교를 <표 14>에서 보면 t값은 -6.214이고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린이들은 책읽기

프로그램 참가 전 보다 참가 후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이 원하는 수업

참가 어린이들에게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은 수업을 질문한 결과, ‘레크레이션 활동(예: 종이접기, 풍선 아트 등)’이 370명(37.7%), ‘문화예술 활동으로 연계 수업(예: 그리기, 만들기, 연극하기 등)’이 325명(33.1%), ‘강의 듣고 직접 체험하거나 실습하기’가 236명(24.1%), ‘학교 공부에 도움 되는 학습활동(예: 독서퀴즈, 글쓰기, 논술 등)’이 207명(21.1%), ‘자유로운 자기주도적 선택활동(예: 책읽기, 정보 찾기, 조사하기 등)’이 167명(17.0%), ‘기타’가 128명(13.0%), ‘강의만 듣기’가 46명(4.7%)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4> 프로그램 참가전과 참가후의 어린이 마음의 평균 변화

| | 검사 | 도서관수 | 평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책읽기 프로그램 | 사전 | 44 | 2.368 | 0.443 | -6.214 | 0.00 |
| | 사후 | 44 | 2.802 | 0.196 | | |

<표 15>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

| 읽기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은 수업 | 명(수) | 백분율(%) |
|---|------|--------|
| 강의만 듣기 | 46 | 4.7 |
| 강의 듣고 직접 체험하거나 실습하기 | 236 | 24.1 |
| 문화예술 활동으로 연계 수업(예: 그리기, 만들기, 연극하기 등) | 325 | 33.1 |
| 자유로운 자기 주도적 선택활동(예: 책읽기, 정보 찾기, 조사하기 등) | 167 | 17.0 |
| 학교 공부에 도움 되는 학습활동(예: 독서퀴즈, 글쓰기, 논술 등) | 207 | 21.1 |
| 레크레이션 활동(종이접기, 풍선 아트 등) | 370 | 37.7 |
| 기 타 | 128 | 13.0 |
| 합 계 | 981 | 100.0 |

4.4.2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 참가
한 후의 도서관 이용 변화

(1)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
하기 전 도서관 이용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참가 전 도서관 이용횟수를 질문한
결과,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가 166명(26.8%),
‘일주일에 3번 이상’이 157명(25.3%), ‘일주일에
1-2번’이 154명(24.8%), ‘한달에 1-2번’이 84명
(13.5%), ‘한 번도 도서관에 간 적이 없다’가 59명
(9.5%) 순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2)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
후 도서관 이용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이용횟수를 질문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이 208명(33.7%), ‘일주일
에 1-2번’이 142명(23.0%), ‘거의 이용하지 않
았다’가 134명(21.7%), ‘한달에 1-2번’이 94명
(15.2%), ‘한 번도 도서관에 간 적이 없다’가
39명(6.3%)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3) 책읽기 프로그램 어린이 참가 전과 참가
후의 도서관 이용 평균 비교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의 참가 전과 참가 후의 평균 비교를 <표
18>에서 보면 t값은 -2.77이고 유의확률 0.01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책읽기 프로그램 참가후
의 어린이들이 참가전의 어린이들 보다 도서관
이용 횟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16>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도서관 이용 횟수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도서관 이용 횟수 | 명(수) | 백분율(%) |
|--------------------------------------|------|--------|
| 일주일에 3번 이상 | 157 | 25.3 |
| 일주일에 1-2번 | 154 | 24.8 |
| 한 달에 1-2번 | 84 | 13.5 |
|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 166 | 26.8 |
| 한 번도 도서관에 간 적이 없었다 | 59 | 9.5 |
| 합 계 | 620 | 100.0 |

<표 17>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도서관 이용 횟수

| 책읽기에 참가한 후 도서관 이용 횟수 | 명(수) | 백분율(%) |
|----------------------|------|--------|
| 일주일에 3번 이상 | 208 | 33.7 |
| 일주일에 1-2번 | 142 | 23.0 |
| 한 달에 1-2번 | 94 | 15.2 |
|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 134 | 21.7 |
| 한 번도 도서관에 간 적이 없다 | 39 | 6.3 |
| 합 계 | 617 | 100.0 |

〈표 18〉 책읽기 프로그램 어린이 참가전과 참가후의 평균 비교

| | 검사 | 도서관수 | 평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책읽기 프로그램 | 사전 | 43 | 9.51 | 4.03 | -2.77 | 0.01 |
| | 사후 | 43 | 10.69 | 5.37 | | |

4.5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 문제점 분석

2009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를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바람직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독서 프로그램의 공동 목표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도서관에서 파견된 독서 프로그램 담당 강사의 재량행위로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효과적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독서교육과 관련된 모형을 선정하고 중앙 집중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독서치료를 목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기 위한 모형’으로 한다면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 도서를 선택하는 등 집중적으로 어린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대상 어린이들의 학년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학년이 혼합되어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교육대상 중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은 3개관(6.5%)이었고, 2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곳은 6개관(13.0%), 3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곳은 10개관(21.7%),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곳은 11개관(23.9%), 5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곳은 5개관(10.9%), 6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곳은 11개관(23.9%)이었다. 기관 내에 프로그램 대상 학년이 저학년과 고학년이 섞여 있으면 어린이들 독서 능력 격차가 크

기 때문에 강사가 어린이들 수준을 모두 맞추거나 흥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

셋째, 1개 기관의 참가대상 어린이수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았다는 점이다. 9-10명인 경우가 3개관(6.5%), 11-15명 15개관(32.6%), 16-20명 18개관(39.1%), 21-25명인 경우가 7개관(15.2%), 26-30명인 경우가 2개관(4.3%), 45명인 경우가 1개관(2.2%)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15명 이내가 적합한데 무려 28개관(60.9%)이 16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20명 이상인 경우도 10개관(21.7%)으로 교육대상자 수가 너무 많은 편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9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평가하고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의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46개 기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 검사지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4월초)와 사후 검사(9~10월)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

그램을 실시한 후에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46개관 중 42개관(91.3%)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난 도서관은 11개관(23.9%)이었다. 이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효과가 나타난 11개관의 교육일정, 교육방법, 교육에 사용된 도서, 교육 활동 등 교육 사례를 분석한 후에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반영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설문지 분석 결과,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부정적이던 어린이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에는 과반수이상의 어린이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후 어린이의 마음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서관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소외된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독서 프로그램 참여의 경험과 영향이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도서관

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도서관 이용이 증가되는 것이 입증되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이 도서관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교육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번 교육 대상이었던 소외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인 등으로 인하여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의 효과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즉, 소외대상 어린이들의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은 단발적인 교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외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의 수가 매우 많다. 하지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많은 소외된 어린이들을 포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역의 많은 도서관들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위한 자체 계획과 예산을 세워 각 지역의 소외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교육인적자원부. 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교육복지부문),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 권영미. 1999. 방과후 아동지도의 쟁점 고찰. 『아동교육』, 9(1): 103-119.

[3] 김순희. 2004.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4] 김정옥. 2001. 『그림책 읽어주기가 장애유아의 사회적 비언어 및 언어 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5] 명창순. 2004. 『독서요법을 통한 저소득층 이혼 가정 아동의 친사회성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6] 민경화. 2000. 『빈곤가족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7] 박미정.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독서 지도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8] 박지연. 2008. 『독서치료가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성격 요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 [9] 방숙은. 2009. 『동화구연을 활용한 독서요법이 지적장애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10] 안민주. 2005.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11] 오경준. 2000.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12] 이남순. 2006. 『동시를 활용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13] 이수향. 2007. 『장애아동의 형제를 위한 독서치료가 형제관계와 형제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14] 이지혜. 2003.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15] 이해영. 2003.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배려. 『교육개발』, 138: 50-53.
- [16] 조미아. 2006.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조미경. 2003. 『시각장애유아의 독서 지도 실태 및 개선 방안』.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18] 조미정. 2009. 『독서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독해력과 읽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19] 조효숙. 2007.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20] 지경희. 2008. 『독서상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 [21] 하영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22] 하정혜. 2004. 『독서치료가 자폐성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23] 한국교육개발원. 200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실천사례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RM2005-25.
- [24] 한복희. 2004. 『독서클리닉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5] 한윤옥, 조현양, 김수경, 조미아, 이미경. 2008.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도서관의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6]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135-160.
- [27]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발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91-122.
- [28] Duncan & Brooks.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 188-196.
- [29] Garnezy, N. 1993.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 Scientist*, 34: 416-430.
- [30] Luthar, S.S. 1999. "Annotation: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issues in research on childhood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441-45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yoyukinjeokjawonbu. 2004. *Chamyebokji 5gaenyeon Gyehoek*(Gyoyukbokjibumun, Chamyeojeongbu Gyoyukbokji Jonghapgyehoek. Seoul: Gyoyukinjeokjawonbu.
- [2] Young Mi Kwon. 1999. "A consideration on issues of the child care after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9(1): 103-119.
- [3] Soon-Hee Kim. 2004. *The Effect of Self-Growth Counseling Program on the Low-Income Bracket Children's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Graduated thesis, Hanyang University.
- [4] Jeung-Ok Kim. 2001. *Geurimchaek Ileojugiga Jangaeyuui Sahoejeok Bieoneo mit Eoneo Pyogyeeone michineun Hyogwa*. Graduated thesis, Dankook University of Special Education.
- [5] Chang Sun Myoung. 2001. *A Study on Pro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Low Income-Divorced Families through Bibliotherapy*. Graduated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 [6] Kyung-Hwa Min. 2000. *A Comparative Study on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the Common Poverty District Children*. Graduated thesis, Honam University.
- [7] Mi-Jung Park. 2008. *A Study on Reading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raduated thesis, Kyunghee University.
- [8] Ji Youn Park.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the Personality factors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Graduated thesis, Kyonggi University.
- [9] Suk-Eun Bang. 2009. *The Effect of Bibliotherapy Applying Storytelling on Sociality of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Graduated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 [10] Min Joo An.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 of Gender-Role Identity and Self-Esteem between Children of Broken Homes and Thoes of Normal Homes*. Graduated thesis, Yonsei University.
- [11] Kyong Jun Oh. 2000. *The Effects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bility*. Graduated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 [12] Nam-Soon Lee. 2006.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using children's poem of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of children from low-incom family*. Graduated thesis, Kyung Sung University.
- [13] Su Hyang Lee. 2007. *The effects of a bibliotherapy for children who have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order on sibling relationship and sibling interaction*. Graduated thesis, Duksung Woman's University.
- [14] Ji Hye Lee. 2003.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to promote self-esteem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Graduated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15] Hye Yeong Lee. 2003. "Soeogyechunge Daehan Gyoyukjeok Baerye." *Gyoyukgaebal*, 138: 50-53.
- [16] Mi-Ah Cho.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Instruction on the Creative Ability 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h.D. diss., Sungkyunkwan University.
- [17] Mi Gyeong Jo. 2003. *(The) Study on Condition of Reading Guidance and Improvements for Young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Graduated thesis, Dankook University.
- [18] Mi-Jeong Jo. 2009. *The Effects of Book-Reading Activity on the Reading Comprehension and Reading Attitude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Graduated thesis, Chosun University.
- [19] Hyo Sook Jo. 2007. *Effect of Bibliotherapy Program on the Depression Self-Esteem and*

- Emotion Control Abilities in the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Graduated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20] Kyung-Hee Jee. 2008.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Counselling Program on Self Efficacy of an Elementary Student's of Low Income family*. Graduated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 [21] Yeong Hui Ha. 2003.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4(4): 29-40.
- [22] Jung Hye Ha. 2004.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for Improving Social Interactions of an Autistic Child*. Graduated thesis, Catholic University.
- [23]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5. *Gyoyukbokjitujauseonjiyeok Jiwon Silcheon Saryejip*.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M2005-25.
- [24] Bock-Hee Hahn. 2004. *Dokseoclinicui Irongwa Silj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25] Yoon-Ok Han, Hyun-Yang Cho, Su-Kyoung Kim, Mi-Ah Cho, Mi-Kyung Lee. 2008. *DamunhwaGajeongui Janyeoreul wihan Doseogwanui program GaebalYeongu*.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26] Yoon-Ok Han, Soo-Kyoung Kim, Mi-Ah Cho.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135-160.
- [27] Yoon-Ok Han, Soo-Kyoung Kim, Mi-Ah Cho.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Strategies of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91-122.